

“창단 멤버 자부심으로 찾아온 기회 꼭 잡겠다”

광주 연고 여자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 특별지명 5인방의 포부

여자 프로배구 신생 구단인 페퍼저축은행의 창단 멤버로서 새로운 출발선 위에 선 5인방이 설레는 소감을 밝혔다.

페퍼저축은행은 20일 경기도 용인 기흥구에 있는 종합연수 교육시설인 'DREAM PARK'에서 코치진과 선수들이 첫 상견례를 가졌다.

신생팀 특별지명을 통해 영입된 센터 이현(20·전 소속팀 GS칼텍스), 센터 최민지(21·한국도로공사), 레프트 지민경(23·KGC인삼공사), 레프트 이한비(25·흥국생명), 센터 최가은(20·IBK기업은행) 등 5명이 구단에서 마련한 티셔츠를 입고 코치진, 구단 관계자 등과 인사를 나눴다.

페퍼저축은행의 초대 사령탑인 김형실 감독이 선택한 5명은 모두 경험보다는 잠재력에 초점을 맞췄다.

창단 멤버가 된 5명 중 4명(최민지, 지민경, 이한비, 최가은)은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출신이다. 고교 졸업반 때는 유망주로 기대를 모았던 재목이라는 의미다.

재능을 인정받았지만, 소속팀에서 주전 자리를 꿰차지 못했던 이들에게 페퍼저축은행이 이적이 새로운 기회다.

2016-2017시즌 신인왕 출신인 지민경은 “아직 어색한데,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엔지니어가 갈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다. 그래도 새로운

4명이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출신

유망주였던 선수들 잠재력 기대

김형실 감독 등 코치진과 첫 상견례

신인왕 출신 지민경 “새로운 시작”

이한비 “최고참으로 팀 잘 이끌겠다”

기회니까 (신생팀으로) 가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택받은 것”이라며 “나에게 기회가 왔으니 이 기회를 꼭 잡겠다”고 덧붙였다.

이한비도 “처음으로 팀을 옮겨 갑작스럽긴 한데, 새 옷을 맞춰 입으니 실감이 난다”며 “(흥국생명이서도) 박미희 감독님이나 언니들이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해주셨다. 팀에서 최고참이 될 줄 몰랐고, 아직 선수단 구성이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언니가 된 만큼 잘 이끌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지난 시즌 첫 경기에서 무릎을 다쳐 시즌 아웃된 최민지는 아직 재활 중이다. 그는 페퍼저축은행에서 무사히 재활을 마치고 새 팀에 힘을 보태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여자 프로배구 신생 구단 페퍼저축은행 김형실 감독과 선수들이 20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드림파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현, 최가은, 최민지, 김형실 감독, 이한비, 지민경. /연합뉴스

최민지는 “창단 멤버의 자부심이 있다”면서 “아직 (오른쪽 무릎) 재활 중이라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잘 치료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전했다.

프로 2년 차 만에 첫 이적을 겪은 최가은도 “서남

원 감독님께서 ‘좋은 기회가 왔으니 높은 곳에서 만나자’고 덕담을 해주셨다”며 “창단 멤버의 자부심을 품고 열심히 하겠다”고 새로운 팀에 임하는 각오를 나타냈다.

전 소속팀인 GS칼텍스에서 주로 원포인트 서버

로 나왔던 이현은 “처음에 차상현 감독님이 ‘섭섭하겠지만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좋은 모습을 보여 달라’고 말씀해주셨다”며 “새로운 도전이 될 것 같다. 기회를 꼭 잡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남장애인사격연맹 이윤리 한국신기록 ‘명중’

회장기대회 50M 3자세 1165점
자신이 세운 기록 2년만에 경신
도쿄패럴림픽 태극대표 성큼



이윤리가 최근 나주 전남국제사격장에서 열린 2021년 대한장애인사격연맹 회장기 및 중별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 1,2차 선발전 소총 50M 3자세에서 사격하고 있다. <전남장애인체육회 제공>

전남장애인사격연맹 이윤리가 자신이 보유한 한국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윤리는 최근 나주 전남국제사격장에서 열린 2021년 대한장애인사격연맹 회장기 및 중별선수권대회 겸 2021년 국가대표 1,2차 선발전 소총 50M 3자세에서 1165점으로 1위에 올랐다.

이윤리는 지난 2019년 같은 부문에서 자신이 세운 한국 신기록(1157점)을 경신했다. 도쿄패럴림픽 출전을 앞두고 있는 이윤리는 이번 신기록 수립으로 태극마크에 성큼 다가갔다.

전남사격연맹 관계자는 “이 선수가 평소에도 꾸준한 자기관리를 통해 훈련에 전념하는 등 도쿄패럴림픽 입상이라는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자기계발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5월 10일부터 9일간 열렸으며, 전국 17개 시도 150명의 선수단이 참가, 14개 종목 개인전 42, 단체전 42개의 세부종목에서 경쟁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54타수 연속 무안타 등 MLB ‘최악 먹튀’ 볼티모어 데이비스, 수술로 올 시즌 아웃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역대 최장인 54타수 연속 무안타 라는 불명예 기록을 세운 크리스 데이비스(35·볼티모어 오리올스)가 올 시즌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하고 시즌 아웃됐다.

볼티모어 구단은 20일(한국시간) 데이비스가 왼쪽 둔부 고관절 수술을 받아 시즌 아웃됐다고 발표했다.

데이비스는 올해 스프링캠프 시범경기에서 단 두 타석을 소화한 뒤 허리와 둔부 통증을 호소하고 개업 휴업했다.

데이비스는 역대 최악의 ‘먹튀’로 꼽히는 선수다.

그는 2013년 53개, 2015년 47개의 홈런을 기록하며 장타력을 뽐낸 뒤 2016년 볼티모어와 7년 총

액 1억6100만달러(약 1823억원)의 대형 계약을 했다.

데이비스는 큰 기대를 받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2018년 타율 0.168, 16홈런, 49타점을 기록한 뒤 2019년엔 타율 0.179, 12홈런, 36타점에 그쳤다.

특히 그는 2019년 62타석, 54타수 연속 무안타에 시달렸다. 모두 MLB 신기록이다.

60경기 단축 시즌으로 치러진 지난해에도 성적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무릎 부상에 시달린 데이비스는 16경기에 출전해 타율 0.115를 기록했다. 홈런은 단 한 개도 터뜨리지 못했다. /연합뉴스

‘배구 여제’ 김연경 중국행

상하이와 입단 합의... 단축 시즌 치르고 7개월 후 거취 다시 고민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던 ‘배구 여제’ 김연경(33)이 중국 상하이 유베스트와의 계약을 택했다.

김연경의 에이전트는 19일 “김연경이 상하이와 입단 합의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과 1년 계약을 했던 김연경은 국내 잔류와 국외 리그 진출을 놓고 고민했다.

김연경의 선택은 중국 리그였다. 2017-2018시즌에 편익한 상하이 구단 입단에 합의했다.

중국 여자배구 슈퍼리그는 아직 다음 시즌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홈 앤드 어웨이의 기존 방식이 아닌 일정 장소에서 ‘단축 시즌’을 치를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기 위해서다.

지난 시즌에도 중국 여자배구 슈퍼리그는 11월 12일에 개막해 12월 18일에 마지막 경기를 치렀다.

김연경의 에이전트는 “만약 올해도 중국 리그가 단축 시즌을 벌이면, 김연경이 중국에 머무는 시간은 3개월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연경은 21일 오전 이탈리아로 출국해, 국제배구연맹 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에 출전한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올림픽이 될 도쿄올림픽에서 메달을 노린다.

중국리그가 올해 12월 혹은 내년 1월 초에 종료하면 김연경은 ‘휴식’과 ‘다른 리그 진출’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2021-2022시즌 유럽리그는 올해 5월 초까지 진행된다. 터키 혹은 이탈리아 구단은 여전히 김연경 영입에 관심을 보인다.

2021년 출범해 2~3월에 정규리그를 치른 미국 여자프로배구 리그 진출도 가능하다.

V리그 복귀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연경은 국외 리그에서는 모든 팀과 계약이 가능한 자유로운 신분이다. 그러나 V리그로 돌아오면 흥국생명과 계약해야 한다.

V리그에서 김연경은 한 시즌을 더 뛰어야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다. 흥국생명이 ‘임대 선수’로 김연경을 중국 리그로 보내면, 김연경은 2021-2022시즌 종료 뒤 V리그에서도 FA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러나 흥국생명에 ‘김연경 보유권 포기’를 강요할 수 없다. 김연경은 V리그 임의 탈퇴 신분으로, 국외 리그에서 뛰는 중이다. /연합뉴스

MLB 워싱턴, 백신 맞은 선수가 코로나 확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워싱턴 내셔널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선수가 나왔다.

MLB닷컴과 AP 통신에 따르면 데이브 마르티네스 워싱턴 감독은 20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리글리필드에서 시카고 컵스와 경기에 나서기 전 선수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선수는 무증상이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였다고 마르티네스 감독은 전했다. 또 감염 경로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온 선수와 밀접 접촉한 선수도 있는데, 이 선수는 백신을 맞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밀접 접촉한 선수는 메이저리그 지침에 따라 일주일 동안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워싱턴은 확진 선수와 밀접 접촉 선수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날 컵스전 선발 라인업에는 들지 않은 선수라고 밝혔다.

컵스는 경기 전 우완 투수 에릭 페드와 테너 레이니를 부상자명단(IL)에 올렸다.

워싱턴 구단은 지난 18일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랑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왕: 더 라스트 첩터
- 2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 3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더 스파이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 4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토토레! 우리 둘만의 여름
- 5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 6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 9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스파이
아들의 이름으로
- 7관 씨네카를
스파이얼, 비외 당신의 이야기
혼자 사는 사람들, 아들의 이름으로
- 8관 씨네카를
도라에몽: 스탠바이미 2, 내일의 기억
명탐정 코난: 비색의 탄환
왕: 더 라스트 첩터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자주듣고 싶은 클래식
2021.05.28(금) 11:0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4

심규선, 달의 뒷면처럼 외로웠던 우리

GAC 11시 음악산책2
심규선, 달의 뒷면처럼 외로웠던 우리
일시: 2021.05.28.(금) 11:0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4

토니 윤 피아노 리사이클

GAC기획공연 포커스
토니 윤 피아노 리사이클
일시: 2021. 06. 26.(토) 19:3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3

